

# 소규모 태양광 설치 땀 인센티브 지급... 1kWh당 100원

## ‘서울형 햇빛발전 제도’ 확대

태양광 발전시설 지속적 설치 유도  
누적 발전용량 10MW→20MW  
“민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서울시가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지속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6일 시에 따르면 소규모 태양광 시설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고 민간 태양광 설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제도는 설비용량이 100kW 이하인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발전량만큼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2013년 도입됐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 6년간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총 256개소에 36억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 고등학교에 설치된 소형 태양광 발전소. /서울시

1250만6000원(발전량 3만7844MWh)을 지원했다. 이들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8487kW 규모다.

시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한 태양광 발전소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곳 중 7곳이 민간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시의 지원을 받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256곳 중 중도 취

소된 9곳과 발전 기간이 1년 미만인 발전소 23곳을 제외한 224곳이었다.

건물용도별로 보면 민간시설이 161곳(7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시설 34곳(15.1%), 대학 포함 학교시설 29곳(13.3%) 순이었다.

설비용량별로는 20kW 미만이 122곳(54.2%), 20kW 이상~50kW 미만은 46

곳(20.9%), 50kW 이상~100kW 이하는 56곳(24.9%)으로 집계됐다.

시는 “분석대상 발전소 224개소 중 민간시설이 161개소로 71.6%를 차지하나 설비용량은 3452kW로 43.8%에 불과하다”며 “민간시설 설비 용량의 73.3%가 20kW 미만으로 소규모”라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제도를 통해 태양광 사업자에게 발전량 1kWh당 100원을 5년 동안 지원한다. 2013년 9월 첫 지급 이후 작년까지 발전소 104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시는 “1~2년 이내에 지원이 종료되는 곳이 60개소(24.3%)이나 신규 지원 신청 발전소 증가는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전력 판매 목적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2017년 132건에서 2018년 52건, 2019년(10월 기준) 32건으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누적 발전용량 기준 10MW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배 늘려 20MW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상계거래, 자가용PPA, 소규모전력중개시장 등록 자가용 시설 가운데 설비용량이 100kW 이하인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 중 민간 태양광 설치자에 가중치 1.2를 적용한다. 단, 민간발전시설 설치자가 민간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시는 이달 중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받아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제도를 확대 실시할 것”이라며 “민간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살림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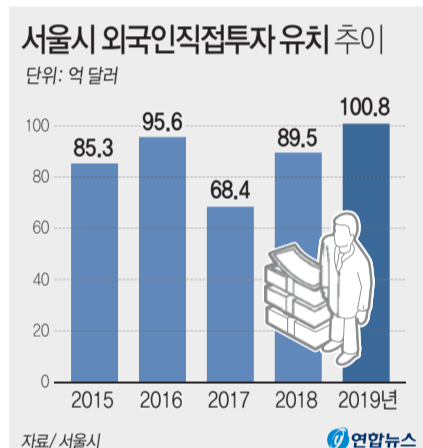
##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액 100억 달러 ↑ (11조7000억)

신규투자·증액투자 고르게 상승

서울시는 지난해 시가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액(FDI)이 최초로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7000억원)를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역대 최고 기록인 2016년 96억 달러를 넘어선 규모며 2018년 90억 달러보다는 12%(11억 달러) 늘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230억 달러) 가운데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규투자와 증액투자가 모두 고르게 상승했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 기반을 조성하는 제조업 분야에서의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2019년에는 총 37억 달러의 신규투자가 유입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수치다. 소프트웨어 개발 등 신산업 분야가 전체 신규 투자의 62%(23억 달러)를 차지했다.



기존 투자자의 증액 투자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60억 달러였다. 이 중 신산업 투자는 28억 달러였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K부티 인기에 힘입어 전년보다 276% 급증한 2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했다. 서비스업은 81억 달러로 3% 감소했지만, 여전히 서울 전체 외국인 투자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김현정 기자

## “농촌서 살아보고 귀농 결정하세요”

### 서울시 귀농체험 60세대 모집 10개월간 거주·교육비용 지원

서울시는 귀농체험을 할 60세대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체류형 귀농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최대 10개월간 거주비용과 교육비용의 60%(월 9만~15만원)를 시가 지원한다. 올해는 흥천, 제천, 무주, 고창, 구례, 강진, 영주, 함양 등 전국 시·도 8곳에서 진행된다.

시가 사업에 참여한 60세대를 대상으로 귀농 여부를 조사한 결과 29세대(48.3%)가 실제로 귀농했고, 귀농 예정인 세대도 19세대에 달했다. 작년 참여자의 94.1%가 귀농지원 사업에 만족한



귀농 교육 모습. /서울시

다고 답했다.

귀농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원근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장은 “꼼꼼한 사전 준비 없이 귀농에 성공하

는 것은 쉽지 않다”며 “예비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거주공간과 맞춤형 영농교육, 현장실습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시설물에 도로명 주소... 안전사고 ‘신속대응’

### 경기도 위치정보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는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에 건물에만 부여하던 도로명 주소를 각종 시설물에도 부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사물주소란 건물이 아닌 각종 시설물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를 활용해 표시한 것으로, 국민들이 지도와 내비게이션 등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도는 앞서 지난해까지 도민 실생활에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지진옥외대피소 1,378개소, 육교 승강기 434개소, 택시 승강장 1,097개소, 둔치주차장 45개소 등 3,854곳에 사물주소 부여를 완료했다. 특히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내에 위치정보가 없어 미야.범죄.재



경기도가 재난안전 사고시 사물주소를 부여하게 될 주요위치 사진 /경기도

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자가 위치 설명 곤란 등으로 긴급한 대처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 지난해 광고호수공원 내 주요시설물 315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경기도, 전통시장 14곳에 특성화 사업 추진

### 혁신시장·공유마켓 등 경제 활성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올해 도내 전통시장 14곳을 대상으로 ‘2020년도 경기도형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 골목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6만 4천여 명 전통시장 종사자를 비롯한 자영업자의 생업기반 강화와 구도심 상권 부흥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경기도 상권진흥구역, ▲경기도 혁신시장, ▲경기공유마켓 3종으로 구성됐다.

첫째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은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침체된 구도심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자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4년간 총 6곳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올해는 지난해 2곳을 지정하

데 이어 2곳을 새로 지정한다.

둘째 ‘혁신시장’은 전통시장의 불편하고 낙후됐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올해는 지난해 2곳을 선정하는데 이어 2곳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셋째 ‘경기공유마켓’은 전통시장·골목상권·5일장 등과 연계된 장소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누구나 판매자(Seller)로 참여할 수 있는 ‘공유 상업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지난해 2곳에 이어 올해 10곳을 신규 지정해 ‘공유마켓 사업단 및 매니저’를 통해 주민, 협동조합, 농업인, 푸드트럭 등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새로운 품목들과 프로그램을 발굴·다변화하고, 상인과 주민이 어울리는 커뮤니티 조성으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서울시 세운상가 입주기업 CES 진출

서울시는 세운상가 입주기업이 개발한 휴대용 3D 프린터가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CES 2020’에 전시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세운상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청년 스타트업 공간 ‘메이커스큐브’에 입주한 ‘아나츠’라는 기업이 올해 CES에 참가한다.

아나츠의 ‘투고우 프린터’는 서울시의 ‘2019년도 세운메이드: 기획형 시제품 개발·제작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됐다.

투고우 프린터는 백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3D 프린터다. 오지나 재난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품이나 도구를 만들 수 있다.

아나츠는 CES 메인전시장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의 테크 이스트 사우스홀 3D 프린팅 존에 개별 부스를 열고 투고우 프린터를 전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